01. 흑산도 탐방안내



● 쾌속선 운항시간

구 간	운 항 횟 수	소 요 시 간
목포 ↔ 흑산	1일, 4회	2시간

● 문 의 전 화

(주)남해고속 : 061)244-9115　(주)남해고속 흑산사무소 : 061)275-9323
(주)동양고속 : 061)244-2111　(주)동양고속 흑산사무소 : 061)275-8111

※ 성수기에는 증편 운항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여객선사로 문의바랍니다.
기상상태에 따라 운항시간이 지연 및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흑산도 투어 (버스, 택시, 자전거)

여객선터미널 → 죽항리 → 해군부대 → 지석묘군(고인돌) → 흑산중학교 → 면사무소 → 흑산초등학교 → 흑산비치호텔 → 진리항 → 철새연구센터 → 진리당(처녀당) → 배당기미습지 → 옥섬 → 읍동 → 삼층석탑무심사지 → 상라산성(반월성) → 상라봉(봉화대, 팔각정 전망대) → 마리 → 지도바위 → 비리 → 간첩동굴 → 하늘다리 → 약수터 → 곤촌 → 심리전망대 → 심리 → 암동 → 천사기념비 → 사리 → 복성재 → 칠형제바위 → 소사리 → 샛개해수욕장 → 천촌리 → 면암 최익현유허비 → 청촌리 → 가는게 → 샘골 → 예리항

※ 문의 사항 : 신안군관광안내소 061)240-8520





02. 흑산도 자연관찰로



자연을 보다 가깝게 느끼고 이해하도록 마련된 체험장소 입니다, 흑산도와 주변의 섬에는 15개의 당산이 있으며, 마을 사람들이 매우 신성시하여 잘 보호하였기 때문에 당산주변의 나무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잘 보전되어 있습니다.

공원탐방 주의사항

- 식물채취 및 동물포획 금지
- 공원시설보호
- 오물투기금지
- 흡연금지

03. 자연해설 프로그램 흑산도 이야기




● 장　소 : 흑산도 상라봉 일원
● 시　간 : 연중
● 내　용
- 흑산도를 지켜온 상라산성
- 바다신을 모시는 당산
- 긍정의 힘을 보여준 유배문화 '자산어보'
- 최익현선생의 "箕封江山 洪武日月"

● 참가인원 : 매회 20명
● 참 가 비 : 무료
● 문 의 처 : 061) 246-2271

04. 생태관광 프로그램 노을따라 물결따라



● 대　상 : 제한없음
● 장　소 : 홍도, 흑산도 일원
● 기　간 : 3월~11월 / 사전문의
● 운영형태 : 숙박형(1박 2일)
● 참 가 비 : 숙식비, 여행자보험료 등
● 문 의 처 : 061)284-9116




05. 국립공원은 이런 곳입니다.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하는 지역'**으로서, 이 지역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국가가 지정, 관리하는 곳입니다.
1967년 지리산을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이후 현재 국토 면적의 6.6%에 해당하는 20개의 국립공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전문적인 공원관리를 위해 1987년에 설립되었으며, 한라산을 제외한 19개(가야산, 경주, 계룡산, 내장산, 다도해해상, 덕유산, 변산반도, 북한산, 설악산, 소백산, 속리산, 오대산, 월악산, 월출산, 주왕산, 지리산, 치악산, 태안해안, 한려해상) 국립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은 1981년 12월 23일 14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전라남도 신안군 홍도에서 시작해 진도와 완도, 고흥을 거쳐 여수시 돌산읍에 이르기까지 그 면적이 2,266.221㎢에 달하는 우리나라 국립공원 중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진 최대의 국립공원입니다.

06. 국립공원 해설프로그램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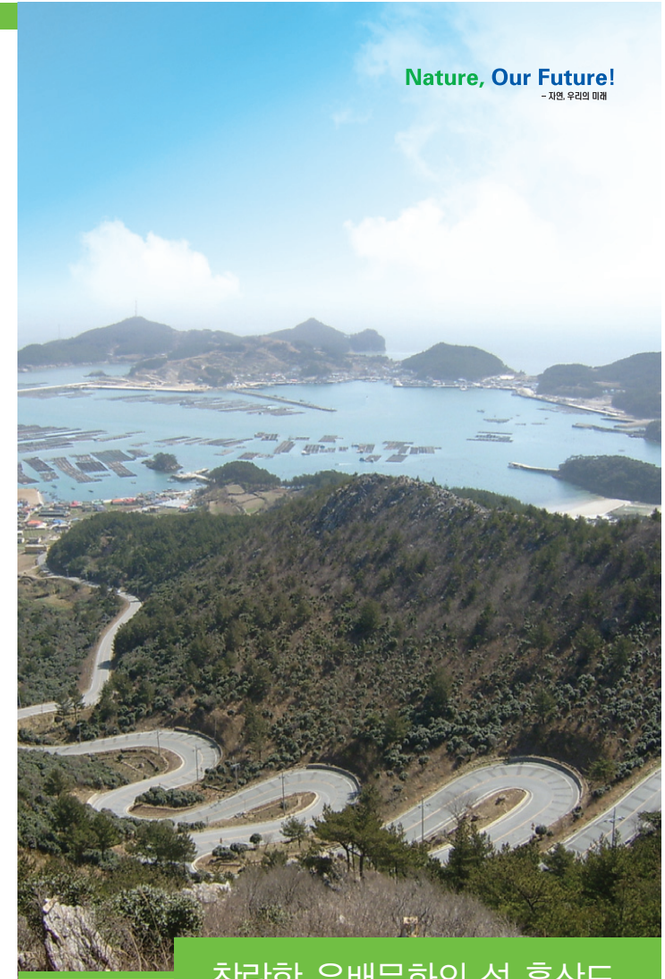
일상 속에서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자연을 새롭게 바라보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명	일 정	장 소
늘푸른 홍도숲 속으로	연중, 매일 4회	홍도 동백숲
조도이야기	연중, 매일 4회	조도 도리산
시목 한 바퀴	연중, 매일 4회	도초도 시목해변
관매도 명품 곰솔숲 속으로	연중, 매일 4회	관매도 곰솔숲

국립공원 해설프로그램을 신청하세요!

전　화 : 흑산도 분소 (061) 246-2271
방　문 : 신안군 흑산면 진리 581
인터넷 : http://ecotour.kups.or.kr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전남 목포시 통일로 84 (옥암동 1091-5)
전화 : (061) 284-9116



찬란한 유배문화의 섬 흑산도

바닷물과 산그늘이 푸르다 못해 검다고 하여 흑산도라 불립니다. 목포에서 서남방으로 92.7㎞ 떨어진 섬으로 면적 19.7㎢ 해안선 길이 41.8㎞에 달하는 큰 섬으로 흑산홍어로 널리 알려진 곳이며, 흥덕왕 3년 장보고가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한 후 왜구를 막기 위한 전초기로 반월성을 쌓으면서 사람이 정착했고, 조선후기 문신인 정약전 선생이 유배생활 중 자산어보를 저술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국립공원 | 다도해해상 KOREA NATIONAL PARK



흑산도 탐방 이모저모

1.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흑산도분소 (061-246-2271)



흑산도는 천연기념물 제 170호인 홍도와 함께 1981년 12월 23일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지정되었습니다. 1990년 4월 홍도분소를 개소하였다가 2004년 1월 흑산도분소로 이관, 개소하여 흑산, 홍도지구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2. 배낭기미습지



국립공원 특별보호구로 지정된 배낭기미습지는 해수와 민물이 만나는 곳으로 멸종위기종 1급인 흰꼬리수리 등 170여종의 다양한 조류가 관찰되는 철새 이동경로의 중간 경유지입니다.

3. 장도습지



우리나라 최초로 발견된 도서지역 산지습지로 2004년 8월에 습지보호지역, 2005년 3월에 람사르 협약 산지습지로 등록되었습니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매오 수달을 비롯해 2급인 솔개, 조롱이, 제주도롱뇽 등 약 500여종의 다양한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어 생물종 다양성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4. 흑산도 일주도로(열두고갯길)



상라봉으로 올라가는 고갯길로 굴곡이 심한 S자형 열두고갯길을 감돌아 올라가면 탁 트인 전망대를 볼 수 있습니다. 구불구불 고갯길 양옆으로는 마치 기름칠을 한 듯 반짝이는 동백나무들을 볼 수 있습니다.

5. 흑산도아가씨 노래비



흑산도를 대중적으로 알리게 된 이미자씨의 '흑산도아가씨' 노래를 기념하기 위해 1997년에 세워졌습니다. 노래비 아래에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어 언제든지 '흑산도아가씨' 노래를 들을 수 있습니다.

6. 하늘도로



켄틸레버 공법으로 건설된 교각이 없는 다리 형태의 도로로써 마치 하늘에 떠 있는 같아 하늘다리라고 부릅니다. 교각 위 벽면에는 신안군 13개 읍, 면과 흑산면을 표현한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7. 국립공원철새연구센터



우리나라를 비롯해 동북아시아를 이동하는 철새들의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국제 학술 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철새 전반에 걸친 체계적 조사와 연구로 우리나라 조류학 및 관련 학문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철새관련 상설 연구기관입니다.

흑산도 주요 탐방로 안내도





흑산도 탐방 이모저모 II

8. 상라산성(반월성)



신라시대 장보고가 왜구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 성은 생김새가 반달 모양을 하고 있어 반월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산성은 바다와 만나는 상라산 북쪽 능선에 위치해 있으며 성의 길이는 2,300m이고 높이는 0.5~2mfh 번성기 흑산도의 역사·문화를 상징하는 유적이기도 합니다.

9. 진리당(자연관찰로)



흑산권역의 22개 당산 중에 본당으로 성황당과 용황당이 있는 곳입니다. 이 곳은 성황당으로 가시당 또는 처녀당이라고도 블리고 있는데 예전에는 처녀신을 모시고 매년 정월초에 제사를 모셨으며 지금은 이 마을 주민들이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기 위해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당산 옆으로는 자연관찰로가 있어 흑산도의 식물상을 관찰하며 산책할 수 있습니다.

10. 진리 지석묘군



육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청동기시대의 지석묘로써 타원형 남방형식의 무덤입니다. 무덤 밑에서는 줄무늬 빗살무늬토기와 생활도구(돌창, 돌그릇 등)가 발견되는 등 학술적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11. 면암 최익현 유허비



최익현 선생의 고매한 애국정신과 후학양성을 위한 뜻을 전달하고자 그의 문하생들이 유허비를 세웠으며 비석 뒤 지장암(손바닥바위)에는 우리나라가 자주국가임을 뜻하는 기봉강산 홍무일월(箕封江山 洪武日月)이라는 최익현 선생의 친필이 새겨져 있습니다.

12. 자산문화관



조선후기 문신 정약전 선생이 16년간 유배생활을 하는 동안 227종의 해양생물을 기록해 놓은 자산어보(玆山魚譜)가 전시되어 있으며, 다양한 영상과 모형으로 흑산도의 역사·문화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3. 복성재(사촌서당)



손암 정약전(1760~1816, 조선후기 실학자)이 천주교도 탄압이 있었던 신유사옥(1801) 당시 이곳으로 유배되어 개설한 흑산도 최초의 서당입니다. 그는 16년간의 유배생활 동안 우리나라 최초의 수산학 관계 서적이자 명저인 자산어보(玆山魚譜)와 우이도 홍어장수 문순득의 파란만장한 동남아 표류기를 대필한 표해시말(漂海始末)을 남겼는데, 이는 절망을 미래를 위한 희망으로 바꾼 유배문화의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